17일 간의 지구촌 눈과 얼음의 대축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지난 25일 밤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대 성황을 이루었다.

평화올림픽, 문화올림픽을 내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우리나라도 동계스포츠 강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우리나라는 효자종목인 쇼트트랙부터 올림픽 기간동안 주목을 받은 스켈레톤과 컬링까지, 다양한 종목에서 입상자들을 배출해 내며 의미있는 성과를 달성했다. 금메달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4개로 한국 동계올림픽 사상 최다 메달 기록을 세우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이에 본보는 평창올림픽의 뜨거웠던 현장을 다시한번 돌아봤다.

기쁨의 눈물

지난 20일 오후 강원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3000m 계주 결승 경기. 금메달을 딴 한국 대표팀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환희' · '감동' · '희망'의 3중주

'아이언맨'의 첫 스타트

지난 16일 오전 강원 평창 올림픽슬라이딩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남자 스켈레톤 3차 주행. 대한민국 윤성빈이 스타트하고 있다.

'여제'의 역주

지난 18일 오후 강원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 경기. 이상화가 역주하고 있다.

"설상의 새 역사 썼다"

지난 24일 강원도 평창 휘닉스 스노 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스노보드 평행대회전 결승전에서 이상호 선수가 은메달을 차지한 뒤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영미, 영미, 영미"… 온 힘을 다해

지난 25일 오전 강원 강릉 컬링센터에서 열린 여자 컬링 4강전 대한민국과 스웨덴의 경기. 대한민국 김선영, 김영미가 함께 스위핑을 하고 있다.

감동적인 '아리랑'

지난 20일 오전 강원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피겨스케이팅 아이스댄스 프리 댄스 경기. 민유라-알렉산더 겜린이 '아리랑' 음악에 맞춰 화려한 연기를 펼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화려하게'

지난 23일 오전 강원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프리 스케이팅 경기. 최다빈이 화려한 연기를 펼치고 있다.

"내가 선두"

지난 17일 오후 강원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1000m 준결승 경기. 1위로 피니쉬한 임효준이 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있다.

"울지 마, 우린 하나가 됐잖아"

지난 18일 오후 강원 강릉 관동하키센터에서 열린 여자 아이스하키 순위결정전 남북 단일팀과 스위스의 경기에서 최지연 선수가 김향미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

"우리가 해냈다"

봅슬레이 4인승 대표팀이 지난 25일 평창 올림픽 슬라이딩센터에서 1~4차 레이스 합계 3분16초38로 독일과 함께 공동 은메달을 차지해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